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 사용 양상 연구



202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SUN XIANGFA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 사용 양상 연구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어국문학과

SUN XIANGFAN

SUN XIANGFA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25일

위 원 장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표 차례>	iii
Abstract	iv
I.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3
1.3 연구 방법	7
II.문장 부사어의 정의 및 분류	9
2.1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 및 분류	9
2.2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 및 분류	19
III.한중 문장 부사어의 특징	25
3.1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25
3.2 한중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	29
IV.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	37
4.1 연구 대상	37
4.2 연구 절차	38
4.3 연구 결과	40
V.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 양상	47

5.1 연구 대상	47
5.2 연구 절차	47
5.3 연구 결과	49
VI. 결론	51
참고문헌	51
부록	54



〈표 차례〉

〈표1〉 한국어 문장부사의 사전적 정의	9
〈표2〉 한국어 부사어의 사전적 정의	10
〈표3〉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선행연구	11
〈표4〉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	16
〈표5〉 중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정의	19
〈표6〉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화용론적 분류	22
〈표7〉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25
〈표8〉 중국어 문장 부사어	27
〈표9〉 피험자의 정보	37
〈표10〉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연구 목록	38
〈표11〉 한국어 번역 과제물	39
〈표12〉 ‘요컨대’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0
〈표13〉 ‘이른바’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1
〈표14〉 ‘솔직히’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1
〈표15〉 ‘제발’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1
〈표16〉 ‘과연’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2
〈표17〉 ‘확실히’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2
〈표18〉 ‘다행이’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3
〈표19〉 ‘고맙게도’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3
〈표20〉 ‘아쉽게도’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43
〈표21〉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연구 목록	48
〈표22〉 중국어 번역 과제물	48
〈표2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빈도	49

A Study on the Use of Adverbials in Korean Sentences by Chinese Learners

SUN XIANGFA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syntactic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sentence adverbs and examined Chines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Korean sentence adverbs. In addition, the use of Chinese learners for Korean sentence adverbs was examined.

Therefore,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six parts. Chapter 1 first presents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Next, the necessity of research was reveal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a research method was suggested.

Chapter 2 examines the definitions of Korean and Chinese sentence adverbs, and examines the subclassification of Korean and Chinese sentence adverbs.

Chapter 3 collects sentence adverbs from Korean and Chinese dictionaries and examines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sentence adverbs.

Chapter 4 examines Chines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Korean sentence adverbs through Chinese learners' translation tasks.

Chapter 5 examines and analyzes the usage patterns of Chinese learners for Korean sentence adverbs through translation tasks of Chinese learners.

Chapter 6 summarizes the previous discussions, presents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pragmatic functions,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Korean-Chinese sentence adverbs have been compared. Alternatively, this paper analyzed the translation tasks performed by middle and high-level Chinese learners. Ten Chinese Korean learners at the topik middle and high-end level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Chinese response expression of Korean sentence adverbs,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by presenting Korean sentences containing sentence adverbs and translating them into Chinese.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use of Chinese learners for Korean sentence adverbs, the topic was analyzed by presenting Chinese sentences that convey emotions and attitudes toward propositions and translating them into Korean.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the pattern of use, there are sentence adverbs in Chines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Korean sentence adverbs, and there are other expressions other than sentence adverbs. There are not many sentences expressed in corresponding adverbs, but "definitely" is translated into "確實" and "fortunately" is translated into "幸好". Both "確實" and "幸好" appeared at the doorstep. This is because most of the Chinese sentence adverbs were realized at the doorstep position. Second, depending on the usage pattern, it seems that most Chinese learners do not use Korean sentence adverbs when translating.

I. 서론

1.1 연구 목적

문장 부사어는 부사어의 하위 분류에 속하며 문장 전체 명제를 수식하는 것이다. 문장 부사어 사용영역은 문장의 어휘적 의미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통사적 차원이나 화용론적 차원의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문장을 구성할 때 부사어는 필수적 성분이 아니어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되기 때문에 부사어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선행 연구에서 문장 전체의 명제내용을 수식하는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문장부사에만 집중하였다. 안명철(2001:6)은 한국어 부사어는 형태적으로 어휘 부사, 부사격 조사구, 용언의 부사어 활용형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성분은 문장부사뿐만 아니라 문장 부사어까지도 확장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장 부사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른 부사어와 달리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감정, 느낌, 태도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문장 부사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문장 부사어에 대한 학습 방법과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다룬 적이 거의 없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마저도 문장부사어의 쓰임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시 학습자 모어의 간섭을 받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 중 중국인 학습자가 상당수¹⁾라는 점에서 한

1) 교육부 2019년 통계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재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총 160,165명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44.4%와 베트남 23.4%를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 출신이 145,74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91.0%이다.

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부사어 사용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중국어에도 문장 부사어는 있으나 학자의 의견에 따라 분류 상의 차이점은 있다. 문장 부사어는 일반적으로는 語氣副詞(어기부사)²⁾나 飾句副詞(S-adverbs)³⁾라고 부른다. 語氣副詞(어기부사)는 楊德峰(2016)는 어기 부사어가 문두에 위치할 때 명제 전체를 수식하는 것인데 술어 앞에 나올 때 술어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楊德峰(2016)에 따라 중국어 문장 부사어를 飾句副詞(S-adverbs)로 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경향으로 보인다. 하나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출발하며 한중 양태부사를 비교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장부사 하위분류에 두고 접속부사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이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는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므로 형태적, 통사적 차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중국어에서는 문장 부사어가 단일 어휘로 실현하는 반면, 한국어 문자 부사어는 단일 어휘뿐만 아니라 부사격 조사구, 용언의 부사어 활용형의 유형도 있다. 이 세 유형의 문장 부사어와 대응된 중국어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며, 한중 문장 부사어의 차이점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학습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먼저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며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史金生(2003)는 語氣副詞(어기부사)가 명제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김중호(2005)에서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를 成分副詞(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句子副詞(문장부사)로 부른다.

1.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부사어에 대하여 다음 세 부분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관한 연구, 중국어 문장 부사어에 관한 연구, 한중 문장 부사어의 비교 연구이다.

한국어 문장부사에 관한 연구가 이화목(1976), 정교환(1990), 손남익(1995:25), 김선호(2005), 신서인(2011), 신서인(2014) 등이 있다.

정교환(1990)은 문장부사의 서법성에 대한 논의와 문장부사의 서법성을 통사적 구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화 행위적 인식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손남익(1995:25)에서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의 수식 범위라는 통사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문장부사를 크게 접속부사와 서법부사로 분류하였다. 손남익(1995)은 서법부사를 의미에 따라 가정, 의혹, 전환, 이유, 확신, 부정, 양보, 추정, 부연 등 9가지 하위 분류로 나눴다.

신서인(2014)은 문장부사를 명제부사, 영역부사, 발화행위 부사, 접속부사로 나누고, 명제 부사는 다시 양태부사, 사건 중심 부사, 참여자 중심 부사로 세분하였다. 또는 발화행위 부사는 발화행위 중심 부사, 화·청자 중심 부사로 세분하였다. 신서인(2014)은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문장부사를 분류함으로써 문장부사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서인(2011)에서는 문장부사의 위치, 그리고 위치에 따른 문장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장부사는 명제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어느 위치에서나 문장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문장부사가 문두에 위치하는 어순은 무표적이다. 셋째, 문장부사를 포함한 문장이 유표적인 어순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문장부사가 다른 위치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을 문두에 두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다른 성분이 문장부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것은 주제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

은 문장 부사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특징이다.

이화목(1976)은 문장부사와 양태부사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문장부사가 문장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나타나는 반면, 양태부사는 술어가 가진 객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문장부사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문장부사에 대한 용어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語氣副詞(어기부사)라기도 하고 飾句副詞(S-adverbs)라기도 한다. 어기부사에 관한 연구는 王力(1947/1985), 齊滬揚(2003), 趙吉(2011) 등이 있다.

王力(1947/1985)는 어기부사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⁴⁾ 여러 가지 정서에 대한 언어의 표현방식을 어기라고 주장하며 어기부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齊滬揚(2003)에서는 어기부사를 功能性語氣副詞(기능성 어기부사)와 意志性語氣副詞(의지성 어기부사)로 나누고, 기능성 어기부사를 다시 陳述語氣(진술어기), 疑問語氣(의문어기), 祈使語氣(명령어기), 의지성 어기부사를 可能語氣(가능어기), 能願語氣(능원어기), 允許語氣(허가어기) 料定語氣(예측어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趙吉(2011)에서는 어기부사의 개념과 어기부사의 형식에 판단 표준을 결합하면서 어기부사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趙吉(2011)는 어기를 기능적 어기와 정태로 분류하였다. 기능적 어기가 진술 의문, 명령, 감탄을 포함하며 어조와 어기조사로 표현한다. 정태는 화자가 의사소통할 때 나타나는 태도와 감정이며 허사로 표현한다.

한편 飾句副詞(S-adverbs)에 관한 연구로는 龍果夫(1958:189), 김종호(2005), 尹洪波(2013) 등이 있다.

龍果夫(1958:189)에 따라서 부사의 범위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술어를 수식하는 것이다.

김종호(2005)에서는 문두에 위치하는 어기부사를 문장부사라고 정의하였

4) 王力(1947/1985)에 따라서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 늘 객관적으로만 어떤 사실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정서 표현도 나타낸다.

다. 그리고 문장부사는 명제의 전체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며 문장의 주어 앞에 나온다고 하였다. 또는 문장부사를 의미에 따라 인식, 평가, 시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尹洪波(2013)는 중국어에서 문장부사는 화자가 태도와 평가를 표현하는 부사라고 하고 高位副詞(higher adverbs)⁵⁾에 속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장부사는 명제 전체를 수식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부사의 비교 연구는 내용이 많지 않고, 실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임의 오류를 밝힌 연구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가 모두 한중 양태부사의 비교와 상관된 연구로 김련옥(2013), 가위경(2014), 주술(2017), 김효진(2019) 등이 있다.

김련옥(2013)은 한국어와 중국어 양태부사의 전반적인 체계를 대조하였다. 먼저 양태부사를 화자가 명제에 대한 인지를 드러내는 인식 양태부사와 행위 실행을 요구하는 의무 양태부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양태부사는 의미적 대응 관계가 1:1 대응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1:다, 다:1, 다:다'의 복합적인 대응 관계를 보이며 일부 양태부사의 대응하는 표현은 양태부사가 아니거나 빈자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위경(2014)는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양태부사 '사실, 분명히, 아마, 어쩌면, 혹시'의 용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실, 분명히, 아마, 어쩌면, 혹시'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분석했다. 한국어 추측성이 있는 양태부사 '사실, 분명히, 아마, 혹시'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술(2017)은 말뭉치 용례를 통하여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양태부사 '과연, 역시'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양태부사 '과연, 역시'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김효진(2019)에서는 한국어 양태부사 '설마'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와 중국어 대응 양상을 언어자료에서 나온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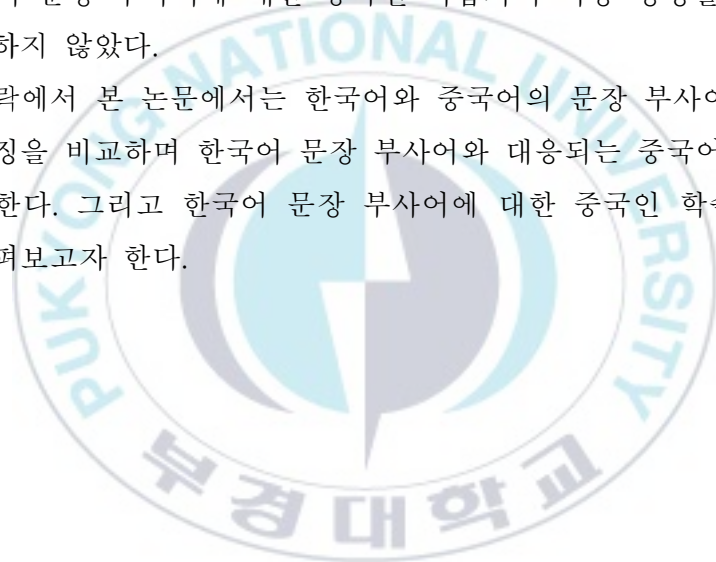
5) 중국어에서 문두가 高位위치, 문중과 문말은 低位위치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문두에 위치하는 부사가 高位副詞라고 하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양태부사 ‘설마’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문장부사만 집중하는데 문장 전체 명제를 수식하는 다른 유형의 문장 부사어를 고려하지 않았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주로 문장 부사어의 개념, 의미적 기능, 그리고 위치를 간단히 언급하였다.

한중 문장 부사어의 비교와 상관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의미론적, 통사적 차원에서 입각하며 비교한 것인데 형태적인 비교 연구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며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문장 부사어의 자료 추출은 문헌 자료에서 수집하는 방법과 학습자의 과제물에 사용되는 문장 부사어의 오류를 수립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1> 문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한국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2008)⁶⁾

『고려대한국어사전』 (2012)

중국어의 경우:

『現代漢語詞典』 (1999)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2003)

<2> 대조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수행한 번역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넘는 topik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문장 부사어가 들어가는 한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취하며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화제가 명제에 대한 감정, 태도를 전달하는 중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주고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1장에서 먼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

6)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_new/index.jsp

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한중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2008), 『우리말 큰 사전』(1993)와 중국어 『現代漢語詞典』(1999), 『現代漢語八百詞』(2003)에 나온 문장 부사어를 수집하여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통사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번역 과제를 통하여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번역 과제를 통하여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며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문장 부사어의 정의 및 분류

2.1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 및 분류

2.1.1 한국어 문장부사의 정의

2.1.1.1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선행 연구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전적 정의와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을 살펴보고 문장 부사와 부사어의 정의를 <표 1>, <표 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 문장부사가 전체를 꾸미는 부사라고 정의하였다. 발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부사로 나눈다고 하였다.

다음에 부사어의 사전적 정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고 부사,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부사에 보조사가 붙은 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표 1> 한국어 문장부사의 사전적 정의

사전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화자(話者)의 태도를 전달하는 양태 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나눈다.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아무쪼록’, ‘하물며’,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 ‘곧’, ‘및’, ‘혹은’, ‘또는’ 따위가 있다.
『고려대한국어사전』	하나의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말하는 이의 태도나 의사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로 나뉜다.

<표 2> 한국어 부사의 사전적 정의

사전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형용사가 어미 ‘-게’ 따위로 활용한 말,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고려대한국어사전』	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 모든 부사나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부사에 보조사가 붙은 말 따위가 이에 속한다.

<표 3>은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정의에서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서정수(1989), 손남익(1995), 고영근, 구분관(2008)의 연구에서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의 대상으로 하는 부사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정교환(1990)에서는 문장부사어의 서법성에 입각하며 문장 부사어란 형태보다도 통사적 기능을 중시한 일반적인 문법범주이고 성분 수식 부사어와 대립하고 문장(명제)을 그 수식 범위로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김연아(2016)는 문장 부사어는 문장과 명제를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정의하였다.⁷⁾

7) 김연아(2016)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문장부사의 정의할 때 수식 범위가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3>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선행 연구

학자의 연구	정의	예시
서정수(1989)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의 대상으로 하는 부사어이다.	결코, 마땅히, 과시, 솔직히, 실은
정교환(1990)	문장 부사어가 형태보다도 통사적 기능을 중시한 일반적인 문법범주이다. 이것은 성분 수식 부사어와 대립하고 문장(명제)을 그 수식 범위로 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말, 반드시, 아마, 아마도, 어쩐지
손남익(1995)	문장 부사어는 문장을 수식의 대상으로 하는 부사어이다.	다행히, 불행히, 반드시, 아마, 아마도
고영근·구분관(2008)	수식 대상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의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어가 성분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는 문장 부사어이다. 문장 부사어는 다시 양태 부사어와 접속 부사어로 구분하고 있다.	뜻밖에, 의외로, 다행히, 아마도
김연아(2016)	문장 부사어는 문장과 명제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결코, 설마, 다행히, 불행히, 과연, 기어이, 기어코

위와 같은 연구들에 따르면 문장 부사어는 성분 부사어와의 대비를 통하여 논의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행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문장 부사어이고, 후행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은 성분 부사어이다. 성분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보통 술어의 앞자리에 나타난다. 반면에 한국어 문장 부사어는 그 위치 이동이 상당히 자유스러워서 술어 앞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성분 부사어인지 문장 부사어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를 더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문장 부사어의 판별 기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2.1.1.2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의 차이

김선호(2005)와 신서인(2014)에서 한국어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장 부사어는 성분 부사어에 비해 문장 내에서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둘째, 분열문⁸⁾ 되기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를 판별하는 기제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준이다. 분열문은 사실 명사화로도 불리는데 문장 부사어를 제외한 문장을 명사절로 변환하여 이를 주어로 설정하고 부사로 서술할 때 문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 중 하나는 문장 부사어가 부정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문장 부사어는 문장을 부정 변형을 시켰을 때 기본문 (문장 부사어를 제외한 문장)을 전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예문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위치 이동 제약

(1)의 예문의 밑줄 부분은 문장 부사어가 사용된 것으로 ‘유감스럽게도’라는 문장 부사어가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 (1) 가. 민수가 밤참을 유감스럽게도 먹는다.
나. 민수가 유감스럽게도 밤참을 먹는다.
다. 유감스럽게도 민호가 밤참을 먹는다.

(2)는 일반 부사로 위치 이동의 제약이 있다. (2나, 다)가 비문이 된 이유는 부사는 서술어 수식 제약을 어겨서 비문이 된 것이다.

8) 서정수(1975)에 따라 사실 명사화를 성립시키기 위해 무리한 변형 관계를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 (2) 가. 이 꽃은 매우 아름답다.
나. *매우 이 꽃은 아름답다.
다. *이 꽃은 아름답다 매우.

(2)의 성분 부사어 ‘매우’는 문장 내 이동이 제한적인 반면, (1)의 문장 부사어라는 ‘유감스럽게도’는 그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

2. 분열문 제약

분열문은 사실 명사화로도 불리는데 문장 부사어를 제외한 문장을 명사절로 변환하여 이를 주어로 설정하고 부사로 서술할 때 문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3)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다. (3나)는 (3가)의 문장을 명사절로 변화한 것이다.

- (3) 가. 다행히 민수가 여자친구를 만났다.
나. 민수가 여자친구를 만난 것은 다행이다.

그리고 예문 (4나)과 같이 문장 부사어가 수식하는 것은 문장의 사실성이며 사실성의 정도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 아닌 ‘사실’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4) 가. 가. 명백히 이것은 네 잘못이다.
나. 이것이 네 잘못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성분부사인 ‘아주’는 사실 명사화가 가능하지 못해 (5나)는 비문이 된다.

- (5) 가. 머리가 긴 여자는 아주 예쁘다.
나. *머리가 긴 여자가 예쁜 것은 아주이다.

3. 부정 영역의 제약

문장 부사어는 문장을 부정 변형을 시켰을 때 기본문 (문장부사를 제외한 문장)을 전제하지 않는다. 다음에 예문 (6)과 같이 살펴보자.

(6가)는 기본문이고, (6나)와 (6다)에는 문장 부사어 ‘다행히’가 쓰인 문장이다. (6다)는 (6가)를 함의하지 않는다. 즉 ‘민수가 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달리기는 달렸다.’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문장 부사어가 부정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6) 가. 민수가 달렸다.

나. 다행히 민수가 달렸다.

다. 다행히 민수가 달리지 않았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 명제를 수식하고 문장 내에서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분열문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는 부정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2.1.2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분류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문장 부사어는 명제 내용, 영역, 발화행위, 접속과 관련된다고 알 수 있다.⁹⁾ 이에 문장 부사어는 접속 부사어, 발화행위 부사어, 영역 부사어, 명제 부사어로 나뉠 수 있다.

신서인(2014)는 발화행위 부사를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화·청자 중심

9) Ramat and Ricca(1998:190)는 기능문법 모델에 따라 문장부사를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능문법 모델에 따르면 문장부사는 세 가지 기능 층위로 나뉜다. 이를 기준으로 부사가 관여하는 층위를 다시 서술어(predicate), 사태(state of affairs), 영역(domain),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발화행위(speech act), 접속(connecting)으로 나누었다.

부사어로, 명제 부사어를 양태 부사어와 평가 부사어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신서인(2014)에서 영역 부사어는 명제가 사실이 되는 영역을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어에서는 단일한 부사로 실현되는 영역 부사어가 거의 없다.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등과 같이 주로 ‘-으로’ 형태의 부사어로 실현된다. 영역 부사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일정한 영역의 안과 밖을 대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과 같이 영역 부사어 뒤에 보조사 ‘은/는’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김경훈(1977)에 따라 부사어는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 그리고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어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문장부사가 의미론적으로 다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 부사어에는 접속부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접속 부사어는 문장 성분으로 독립어에 속한다. 그리고 접속 부사어의 위치도 대체로 문두에만 고정하는 점에서 다른 문장 부사어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를 화용론적 특징에 따라 발화행위 부사어, 영역 부사어, 명제 부사어로 나눈다. 발화행위 부사어를 다시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화·청자 중심 부사어로 분류하고, 명제 부사어를 양태 부사어와 평가 부사어로 분류한다.

<표 4>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			예
접속 부사어			그리고, 그러나
발화행위 부사어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		요컨대, 예컨대, 이른바, 이를테면
	화·청자 중심 부사어	화자 중심 부사어	솔직히, 사실
		청자 중심 부사어	제발, 부디
영역 부사어			현실적으로
명제 부사어	양태 부사어		확실히
	평가 부사어	사건 중심 평가 부사어	불행히, 다행히, 놀랍게도
		참여자 중심 평가 부사어	친절하게도

발화행위 부사어(speech-actadverbs)는 발화 행위(speech-act)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발화행위 부사어는 다시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화·청자 중심 부사어로 나뉜다.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에는 ‘요컨대, 예컨대, 이른바, 이를테면’ 등을, 화·청자 중심 부사어에는 ‘사실, 솔직히, 제발, 부디’ 등을 분류하였다. 명제 부사어(propositionaladverbs)란 수식의 대상이 명제가 되는 부사로 이는 다시 양태 부사어(modaladverbs)와 평가부사어(evaluateadverbs)로 분류 할 수 있다. 명제 부사어의 담화적인 특징은 화자를 상정하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양태 부사어는 양태성(modality)을 갖는 부사어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인다. 평가 부사어의 경우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다행히’, ‘불행히’ 등의 어휘 부사어, 그리고 형용사가 부사형어미 ‘-게도’와 결합한 ‘-게도’형 부사어가 있다. (7) 예문은 담화 요소에 따른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쓰임을 보인 것이다.

(7) 가. 요컨대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가는 문제는 결정되었다.

나. 솔직히, 민수가 미나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

다. 제발 그냥 두고 가세요.

(7,가-다)는 발화행위 부사의 예시들이다. 발화행위 부사는 화행 (speech-act)과 관련되어 ‘솔직히 말하면’처럼 ‘말을 하는 행위’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이는 다시 발화행위 중심 부사와 화·청자 중심 부사로 나뉜다. 발화행위 중심 부사는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부사이다. 이때 화자가 자신이 하는 발화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7가)와 같이 화자가 말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요점을 말하기 위해 ‘요컨대’와 같은 문장부사를 사용하고 있다. 화·청자 중심 부사는 화자나 청자에 대한 언급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7나)에서 ‘솔직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이고 화자에 대한 언급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다시 말하면 이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화자이다. ‘민수가 미나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라는 사실을 화자가 청자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7다)에서 ‘제발’은 청자에 대한 요청이나 부탁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발’, ‘부디’와 같은 청자 중심 문장부사가 명령문에서 많이 쓰인다.

(8)에 보기를 든 문장부사는 모두 명제 부사이다. 명제 부사는 명제를 수식의 대상으로 하는 부사이며 양태¹⁰⁾부사와 평가 부사로 나뉠 수 있다. (8가)에서 ‘확실히’는 ‘민수가 문을 잠갔다’는 명제 전체를 수식한 양태부사이다. 화자가 ‘민수가 문을 잠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8) 가. 확실히 민수가 문을 잠갔다.

나. 다행히 교사가 나 말고도 세 명이 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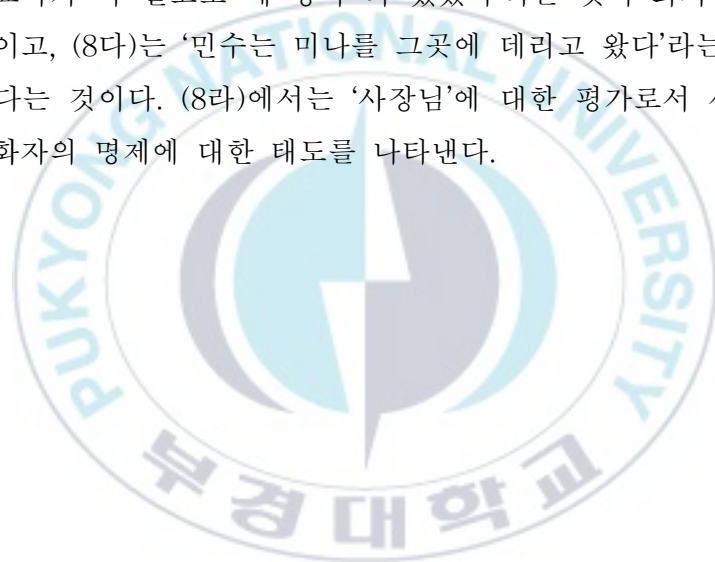
다. 놀랍게도 민수는 미나를 그곳에 데리고 왔다.

라. 사장님께서 친절하게도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셨다.

10) Lyons(1977)에서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태도라고 제시하였다.

(8나)의 ‘다행히’, (8다)의 ‘놀랍게도’, (8라)의 ‘친절하게도’가 모두 평가 부사이다. 평가 부사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이고, 무엇에 대한 평가이냐에 따라 사건 중심 평가 부사와 참여자 중심 평가 부사로 분류될 수 있다. 김종명·박만규(2001)는 형용사 중 ‘놀랍다, 다행하다’ 등의 소위 심리 형용사와 ‘친절하다’ 등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게도’ 형의 문장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사건 중심 평가 부사에 해당하고, 후자는 참여자 중심 평가 부사에 해당한다.

(8나)의 ‘교사가 나 말고도 세 명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 화자에게 다행스럽다는 것이고, (8다)는 ‘민수는 미나를 그곳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화자에게 놀랍다는 것이다. (8라)에서는 ‘사장님’에 대한 평가로서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2.2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 및 분류

2.2.1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

2.2.1.1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전적 정의와 학자의 견해

중국어에서 문장 부사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기 어렵고 학자들의 논의도 드물다. 학자에 따른 문장 부사어의 용어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語氣副詞(어기부사)나 飾句副詞(S-adverbs)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학자들이 중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5> 중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정의

학자의 연구	정의
王力(1957)	語氣詞(어기사)를 제외하고, 語氣副詞(어기부사)도 문장 전체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齊春紅(2006:18)	語氣副詞(어기부사)가 부사어의 위치에서 어기를 표현하는 어휘이다.
李泉(1996:376)	행위나 발화 내용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낸다. 문장을 수식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두에서 위치한다.
史金生(2003)	발화자의 감정, 인식, 의도, 태도 등을 전달한다.
方梅(2017)	문장의 수식어.

<표54>에 따라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며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 문장부사의 특징과 같이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위치, 부정 영역에 따른 특징을 살펴 보았다¹¹⁾.

2.1.1.2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의 차이

1. 위치 이동 제약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SVO(주어+술어+목적어)이다. 尹洪波(2013)에서 SVO 어순인 언어에서 부사가 주어 앞, 술어 앞, 문말의 위치에 나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영어 부사는 이 세 위치에 모두 나올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주어 앞과 술어 앞에서 위치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중국어에서 주어 앞이나 술어 앞에서 모두 위치할 수 있는 부사가 있고 술어 앞에만 위치할 수 있는 부사도 있다. 전자는 바로 문장 부사어이다.

(9) 가. 可能小姑娘會喜歡這種人.

(아마도 젊은 여자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 같다.)

나. 小姑娘可能會喜歡這種人.

(젊은 여자가 아마도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 같다.)

(9)는 문장부사 ‘아마도’의 예시이다. (9가)는 부사 ‘아마도’가 주어 앞에서 위치하며 문장 전체를 수식한 것이다. (9나)는 ‘아마도’가 명제 ‘會喜歡這種人(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 같다)’를 수식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라서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문장에서 자유로운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주어 앞이나 술어 앞에서 위치할 수 있다. 예문(9)와 같이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술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사구 앞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주어 뒤에 고정하는 경우도 있다.

(10) 가. 我約在月底去中國.

(내가 아마도 월말에 중국에 갈 거 같다.)

나. *約我在月底去中國.

11) 여기서 분열문에 따른 특징을 논의하지 않았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모두 허사에 속하므로 명사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내가 월말에 중국에 갈 거 같다.)

(10)에서 ‘아마도’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부사 ‘約’도 있다. 2음절 문장부사가 중국어에서 주어 앞에 나올 수 없다.¹²⁾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이동할 때는 (11)과 같은 경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11) 가. 大概因爲我沒有同意, 他見到我的時候挺不高興的.

(아마도 비록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만날 때 그가 기분이 안 좋다.)

나. * 因爲大概我沒有同意, 他見到我的時候挺不高興的.

(* 비록 아마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만날 때 그가 기분이 안 좋다.)

예문(11)에서 문장부사 ‘大概’가 접속사 ‘因爲’ 앞자리에만 나올 수 있으며 뒤에 나오면 비문이 된다. 그래서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앞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

2. 부정 영역의 제약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부정 영역에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 다시 부정변형된 문장에서의 함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다음 예문을 보면.

(12) 가. 這是你的錯誤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

나. 的確這是你的錯誤

(확실히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

다. 的確這不是你的錯誤

(확실히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12) 袁毓林(2002:337)에서 1음절 문장부사가 화제화하기 어려워서 주어 앞자리에 위치할 수 없다.

문장 부사어인 ‘的确’의 수식을 받는 예문(12나)는 (12가)를 함의한다. 그러나 부정문 (12다)는 (12나)를 함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부사가 명제에 대하여 함의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부정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위와 같이 중국어 문장 부사어를 다시 정리해 보자. 중국어 문장 전체 명제를 수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 가능한 것이 있고, 문두에서만 고정된 것도 있다. 또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부정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2.2.2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분류

본 논문에서는 Ramat and Ricca(1998)에 따라 중국어 문장 부사어를 화용론적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화용론적 기능은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표 6>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화용론적 분류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		예	
발화행위 부사어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		-
	화·청자 중심 부사어	화자 중심 부사어	其實(솔직히)
		청자 중심 부사어	千万(제발)
영역 부사어		-	
명제 부사어	양태 부사어	的确(확실히)	
	평가 부사어	可惜(가깝게도),幸好 (다행히)	

<표 6>을 보면 중국어에서 발화행위 부사어 중의 화·청자 중심 부사어, 명제 부사어 모두 존재하는 반면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영역 부사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3)에서는 발화행위 부사어의 예시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 ‘其實’와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사실’이고 ‘千万’와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는 ‘제발’이다.

(13) 가. 其實他去了上海.

(사실 그는 상하이에 갔다.)

나. 千万記住我說的話

(제발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13)에서는 발화행위 부사어의 예시다. (4가)가 화자가 ‘그는 상하이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달한 것이다. (4나)는 청자에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한 것이다.

(14) 的確這不是你的錯.

(확실히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14)에 나온 ‘的確’는 양태부사에 속하므로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낸다.

(15) 가. 幸好他沒聽見.

(다행히 그가 듣지 못했다.)

나. 真麻煩, 那个人又來了.

(귀찮게도 그 사람이 또 왔다.)

(15)에서 ‘幸好’와 ‘眞麻煩’는 모두 평가 부사이다. (15가)는 ‘그가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평가한 것이고 (15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이다.



Ⅲ. 한중 문장 부사어의 특징

3.1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3.1.1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부사어는 형태적으로 어휘 부사, 부사격 조사구, 용언의 부사어 활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문장 부사어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 어휘 문장 부사어, '체언+부사격조사', '용언어간 + 부사형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표 7>에서와 같이 '용언+부사격어미'가 주로 '-게도'형¹³⁾으로, '체언+부사형조사'는 '적으로는'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7>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유형	표현 형식	예
어휘 문장 부사어	어휘 부사	요컨대, 확실히, 다행히
용언 어간+부사격어미	'-게도'형	놀랍게도, 친절하게도
체언+부사격조사	'적으로는'형	기술적으로, 언어학적으로

13) 김종명, 박만규(2001:57)에서는 '-게(도)'형의 문장 부사어에 붙는 보조사 '도'는 수의적 요소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도'가 붙으면 문장 부사어의 기능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였다.

신서인(2014:113)에서는 한국어에서 참여자 중심 평가 부사는 단일한 부사로 실현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고 '친절하게도, 운 좋게도'등과 같이 주로 '-게도'형의 부사어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예문(16)에 나온 ‘확실히’, ‘기쁘게도’, ‘현실적으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16가)의 ‘확실히’가 어휘 문장 부사어에 속한다. (16나)의 ‘기쁘게도’는 형용사 ‘기쁘다’가 부사격조사 ‘-게도’와 결합한 문장 부사어이다. 그리고 (16다)의 ‘현실적으로는’은 명사 ‘현실적’이 부사형어미 ‘-으로는’과 결합한 문장 부사어이다.

(16) 가. 확실히 그녀가 똑똑한 사람이다.

나. 기쁘게도 민호가 왔다.

다.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3.1.2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가 한국어문장 부사어 보다는 비교적로 간단하다. 李泉(1996)와 張誼生(2000)에 나온 문장 부사어를 살펴보면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한국어와 달리 어휘 부사의 형식만 존재한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표 8>과 같다.

<표 8> 중국어 문장 부사어¹⁴⁾

1음절	萬 許 也 硬 並 倒 才 都 斷 該 定 反 竟 決 可 總 怕 偏 準 切 却 似 真 還
2음절	必定 必須 不妨 不愧 不免 誠然 大概 大約 到底 當然 當真 的確 定然 斷然 多虧 反倒 反正 分明 敢情 剛巧 根本 固然 果然 果真 還是 好歹 何必 何不 橫豎 或許 簡直 竟然 究竟 居然 虧得 明明 莫非 難道 難怪 寧可 寧肯 寧愿 偏偏 其實 恰好 恰恰 恰巧 千萬 確實 甚至 實在 顯然 似乎 算是 萬萬 委實 未免 无妨 無非 務必 興許 幸而 幸好 幸虧 也許 一定 原來 約莫 正好 只得 只好 終究 準保 着實

<표 8>를 살펴보면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형태적으로 어휘부사와 같은 형태만 존재한다. 중국어는 독립어라는 언어 유형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1음절과 2음절로 나뉜다. 그리고 2음절 문장부사는 1음절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볼 수 있다.

3.1.3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의 비교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형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가 중국어보다 더 다양하다고 알 수 있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형태적 특성에 따라 어휘 문장 부사어, ‘체언+부사격조사’, ‘용언어간+부사형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용언어간+부사격어미’가

14) 李泉(1996)와 張誼生(2000)에 나온 문장부사 중의 공통한 부분만 선택한 것이다.

주로 ‘-게도’형(유감하게도, 놀랍게도)으로, ‘체언+부사형조사’는 ‘적으로는’형(현실적으로, 언어학적으로)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단일한 어휘 부사어만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어 문장 부사어 3가지 유형이 중국어 문장 부사어와 모두 다 대응되는가, 대응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2 한중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

본 절에서 구문 제약과 위치에 따라 한중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3.2.1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

① 구문 제약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구문 제약은 의문문과 명령문에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의문문 제약을 살펴보자.

a. 의문문 제약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확인의문문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환목(1976)에서는 아래 예문(17)를 들며 이점을 논의하였다. 이환목(1976)에 따라 확인의문문은 ‘예’라는 대답만이 가능하고 전제가 사실임을 청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이다.

(17) 가. 다행히 민호가 달렸습니까? 결국 안 달렸어요?

나. 고맙게도 이걸 놓고 갔어요?

다. 친절하게도 직접 와서 묻던가요?

그러나 (17가)가 대답할 때 ‘예’만 허용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민호가 달렸음을 꼭 전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민호가 운동회에서 안 달릴까 봐 걱정이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난 다음날, 운동회에서 어떠했는지를 묻는 발화라면 위의 예는 꼭 확인의문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뒤에 ‘결국 안 달렸어요?’가 후속되는 데서도 확인된다.

(17나)는 누군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들은 후에 한 발화라면 “아니요, 그건

어제 다른 분이 두고 간 거예요.”라는 답변이 가능하다. (17다)도 역시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다는 말을 들은 후의 발화라면 “아니요, 전화로 문의했어요.” 등의 답변이 가능하다. 이런 대답은 해당 발화 전체가 의문의 영역 안에 있을 때의 것이다.

위와 같은 예문은 모두 평가 부사의 예시다. 다음에 다른 문장부사가 의문문에서 쓰임의 예시도 살펴보자.

(18)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18)를 통하여 ‘도대체’, ‘대관절’과 같은 문장부사가 순수의문문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부사는 적어도 확인의문문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b. 명령문 제약

많은 학자는 문장부사가 명령문에서 쓰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9가)를 보면 ‘다행히’와 같은 문장 부사어는 명령문에 쓰이지 못한다.

(19) 가. *다행히 문을 열어라.

나. 제발 문 좀 닫고 다녀라.

그러나 이는 문장 부사어 중 ‘다행히’와 같은 평가 부사어에 한정된 설명이다. (19)에 나온 것과 같이 한국어의 문장 부사어 ‘제발, 부디’와 같은 청자 중심 발화행위 부사어의 경우 명령문 혹은 청유문과의 공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② 문장 부사어의 위치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어는 문두에서 위치하며 문장 내에서 자유로운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문장 부사어의 위

치가 달라짐으로써 유발되는 의미 차이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장 부사어에서 위치 이동 가능한 것이 있고, 문두에만 고정된 것도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문장 부사어도 위치에 따른 차이가 다소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위치 이동 자유로운 문장부사와 문두에만 고정된 문장부사로 분류하며 논의한다.

먼저 위치 이동 자유로운 문장부사를 살펴보자.

(20) 가. 다행히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 민호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20)의 ‘다행히’는 모두 문장부사로 쓰인다. (20나)에서는 ‘다행히’가 술어 ‘일어나는’과 인접되지만 성분부사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다’ 전체¹⁵⁾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1) 가. 민호가 밤참을 유감스럽게도 먹는다.

나. 민호가 유감스럽게도 밤참을 먹는다.

다. 유감스럽게도 민호가 밤참을 먹는다.

(21)에서 ‘유감스럽게도’가 모두 문장 부사어이다. 하지만 위치에 따라 수식하는 범위만 달라졌다. (21다) 무표적인 어순이고, 문장 전체가 부사의 수식 범위가 되며 ‘민호’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 (21가,나)는 유표적인 어순을 가지는 것이고, 동사구만이 문장부사의 수식 범위가 되며 이때에는 ‘밤참’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

위와 달리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서 위치 이동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도 있다. 다음으로 예문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22) 가. 민호가 약속시간을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

15) 이것은 바로 동사구를 수식한 것이다.

나. 확실히 민호가 약속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 민호가 확실히 약속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

(22가)에서 ‘확실히’는 바로 뒤에 나오는 ‘알려주-’를 수식한 성분부사이다. 이 문장은 ‘민호가 약속시간을 알려주기는 했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22나)와 (22다)에서 ‘확실히’는 문장 부사어로서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 문장은 ‘민호가 약속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무표적인 어순을 가지는 (22나)와 달리, 유표적인 어순을 가지는 (22다)에서는 ‘민호가’라는 성분이 주체화되어 있다. 이 문장은 ‘민호에 대해 말하자면, 민호는 확실히 약속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져 있다.

이에 ‘확실히’와 같은 부사가 위치를 이동하면 성분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문장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문장부사로 쓰인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문두 위치에만 고정하는 문장부사도 있다. 예컨대 ‘제발’, ‘부디’와 같은 청자 중심 발화행위 부사이다. (23)은 청자 중심 발화행위 문장 부사어의 예시다.

(23) 제발 제 말 좀 믿어 주세요.

3.2.2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에서 평가성 문장 부사어가 진리치를 구할 수 있는 진술문에서만 설립된다. 따라서 의문문, 명령문, 기원문¹⁶⁾에서는 비문을 이룬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통사적 특징을 예문과 같이 살펴보고 분석하기로 한

16) 기원문은 화자의 바람이 청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

① 구문 제약

중국어 평가성 문장 부사어가 구문될 때 의문문, 명령문, 기원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먼저 의문문을 살펴보자.

a. 의문문 제약

(24) 가. 好在, 他們都是木匠.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모두 목수이다.)

나. * 好在, 他們都是木匠嗎?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모두 목수입니까?)

예문 (24가)에서 보듯 서술문에서의 문장부사 ‘好在’는 ‘그들이 모두 목수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이다. 즉 화자는 명제의 진리치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24나)는 의문문으로서 진리치를 구할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된다.

b. 명령문과 기원문의 제약

(25) 가. 好在, 你吃飯吧.

(다행스럽게도 너 밥먹으라.)

나. 好在, 祝你一路順風.

(다행스럽게도 잘가시오)

명령문인 (25가)도 비문이 된다. 명령문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경우이므로 청자가 화자의 요구대로 행동할 경우는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나쁘다고 볼 뿐 진리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기원문인 (25나)도 진리치를 구할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된다. 여기서 미래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태에 대하여 화자의 관점에서 사실성 여부를 평가하여 개입시킬 수 없다.

②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위치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SVO(주어+술어+목적어)이다. 尹洪波(2013)에서 SVO 어순인 언어에서 부사가 주어 앞, 술어 앞, 문말위치에 나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영어 부사가 바로 이 세 가지 위치에 모두 나올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주어 앞과 술어 앞에서 위치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중국어에서 주어 앞이나 술어 앞에서 모두 위치할 수 있는 부사가 있고 술어 앞에만 위치할 수 있는 부사도 있다. 전자는 바로 문장 부사어이다.

(26) 가. 可能小姑娘會喜歡這種人.

(아마도 젊은 여자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 같다.)

나. 小姑娘可能會喜歡這種人.

(젊은 여자가 아마도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 같다.)

(26)는 문장부사 ‘아마도’의 예시이다. (26가)가 ‘아마도’가 주어 앞에서 위치하며 문장 전체를 수식한 것이다. (26나)는 ‘아마도’가 명제 ‘會喜歡這種人(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 같다)’를 수식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라서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문장에서 자유로운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주어 앞이나 술어 앞에서 위치할 수 있다. 예문(26)와 같이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술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사구 앞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주어 뒤에서만 고정되는 경우도 있다.

(27) 가. 我約在月底去中國.

(내가 아마도 월말에 중국에 갈 거 같다.)

나. * 約我在月底去中國.

(아마도 내가 월말에 중국에 갈 거 같다.)

(27)에서 ‘아마도’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부사 ‘約’도 있다. 이 음절 문장 부사가 중국어에서 주어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17)

그리고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이동할 때 (28)와 같은 경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28) 가. 大概因爲我沒有同意, 他見到我的時候挺不高興的.

(아마도 비록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만날 때 그가 기분이 안 좋다.)

나. * 因爲大概我沒有同意, 他見到我的時候挺不高興的.

(* 비록 아마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만날 때 그가 기분이 안 좋다.)

예문(28)에서 문장부사 ‘大概’가 접속사 ‘因爲’ 앞자리에만 나올 수 있으며 뒤에 나오면 비문이 된다. 그래서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앞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

3.2.3 한중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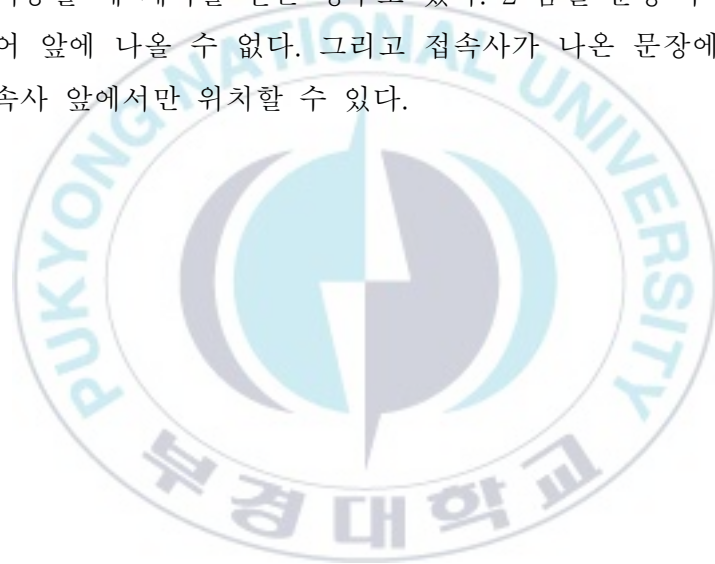
이 장에서 한중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예문을 통하여 한중 문장부사에 대해 구문 제약, 문장 부사어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우선 구문 제약 같은 경우,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 나오면 비문이 되지만 ‘도대체’, ‘대관절’과 같은 문장부사가 의문문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는 적어도 확인의문문에서

17) 袁毓林(2002:337)에서 1음절 문장부사가 화제화하기 어려워서 주어 앞자리에 위치할 수 없다.

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명령문에 쓰인 경우도 있다. ‘제발, 부디’와 같은 청자 중심 발화행위 부사의 경우 명령문 혹은 청유문과의 공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반면에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의문문, 명령문, 기원문에서 모두 제약을 받아서 비문이 된다.

문장 부사어의 위치의 경우, 한중 문장 부사어에서 위치 이동 가능한 것이 있고, 문두에만 고정된 것도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문장 부사어도 위치에 따른 의미 차이가 다소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이동할 때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 2 음절 문장 부사어가 중국어에서 주어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접속사가 나온 문장에서 문장 부사어가 접속사 앞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



IV.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

4.1 연구 대상

본 논문은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수행한 번역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제에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넘는 topik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의 정보가 <표 9>과 같이 나타났다.

<표 9> 피험자의 정보

번호	나이	성별	topik 등급	거주 시간
1	20살	여	4급	3년
2	34살	여	6급	4년
3	26살	남	5급	3년
4	28살	여	5급	3년
5	36살	여	6급	7년
6	25살	남	3급	4년
7	25살	남	5급	3년
8	27살	남	5급	5년
9	26살	여	4급	3년
10	30살	남	6급	3년

<표 9>를 보면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성별과 상관없이 평균 연령이 27.7세, 한국에서 거주하는 평균 시간은 3.8년, topik 중고급을 취득한 중국인 학습자라고 확인할 수 있다.

4.2 연구 절차

본 논문에서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문장 부사어가 들어가는 한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취하며 분석하였다.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역 부사어와 접속 부사어를 제외하여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가 2가지 있는데 어휘 부사어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이 부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도 있다.

본 논문에서 두 가지 형태 문장 부사어를 취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 제시한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에 따라 연구 목록을 선정하였다. 즉, <표 10>과 같이 발화행위 부사어 중의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화·청자 중심 부사어, 명제 부사어 중의 양태 부사어와 평가 부사어에 따라 연구 목록을 선정하였다.

<표 10>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연구 목록

문장 부사어의 분류		문장 부사어
발화행위 부사어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	요컨대, 이른바
	화·청자 중심 부사어	솔직히, 제발
명제 부사어	양태 부사어	과연, 확실히
	평가 부사어	다행히, 고맙게도, 아쉽게도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29가, 나)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어휘 부사어뿐만 아니라 다른 활용형도 있는 반면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단일 어휘만 존

재한다. (29가)가 중국어에서 형태가 다양한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하는 문장 부사어가 모두 존재하는가, 없으면 어떤 대응 표현으로 실현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위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다. (29나)는 같은 의미가 갖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29) 가.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어디 위치하는가?

(29)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문장 부사어를 가지는 한국어 문장 9개를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번역 과제로 피험자에게 제시한 중국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표 11>과 같이 한국어 문장을 선택할 때 문장 부사어가 문두에서 위치하는 문장만을 선택하였다.

<표 11> 한국어 번역 과제물

- ① 요컨대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 ②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이 책을 멀리하다니.
- ③ 솔직히 요즘은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 ④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주세요.
- ⑤ 과연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⑥ 확실히 형이 동생보다 낫다.
- ⑦ 다행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 ⑧ 고맙게도 민준이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 ⑨ 아쉽게도 결승 진출권을 잃다.

4.3 연구 결과

4.3.1 중국어 대응표현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번역문을 살펴보면 중국어 대응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용 양상에 따라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서 문장 부사어가 있는데 문장 부사어가 아닌 다른 표현도 있다. 다음에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표 12>를 살펴보면 ‘요컨대’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주로 ‘總之’, ‘總而言之’로 표현한다. 그 중에 ‘總之’가 50%, ‘總而言之’는 30%로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번역하지 않은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물어봤는데 모두 뜻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또는 ‘總之’, ‘總而言之’가 중국어에서 접속사(연사)에 속하므로 ‘요컨대’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요컨대’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요컨대	總之	總而言之	∅
비율	50%(5)	30%(3)	20%(2)

<표 13>를 보면 한국어 문장 부사어인 ‘이른바’는 40%의 피험자가 뜻을 알고 있는데 60%의 피험자가 뜻을 몰라서 번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所謂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所謂的’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 관형어에 속하므로 중국어에서 ‘이른바’와 대응하는 문장 부사어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이른바’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이른바	所謂的	∅
비율	40%(4)	60%(6)

<표 14>와 같이 한국어 문장 부사어인 ‘솔직히’가 중국어에서 ‘說實話’, ‘坦白地說’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표현은 중국어에서 문장 부사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솔직히 말한다.’라는 것을 뜻한다.

<표 14> ‘솔직히’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솔직히	說實話	坦白地說
비율	60%(6)	40%(4)

<표 15>에서 ‘제발’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拜托’, ‘求(你)’로 번역된다. 그 중에 ‘拜托’의 사용빈도가 30%, ‘求(你)’의 사용빈도가 70%로 차지한다. “拜托”와 ‘求(你)’는 모두 ‘부탁하다’를 뜻하는데 전자가 문어에서 많이 쓰이고 후자는 구어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나 문장에서 둘 다 서술어에 속한다.

<표 15> ‘제발’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제발	拜托	求(你)
비율	30%(3)	70%(7)

<표 16>를 보면 ‘과연’을 번역할 때 세 가지 중국어 대응표현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果然’가 20%, ‘到底’가 40%, ‘究竟’는 40%에 차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문장 부사어에 속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과연’의 의미와 대응하는 것은 ‘果然’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부사어 ‘果然’는 의문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번역문은 비문이 된다. ‘到底’와 ‘究竟’는 ‘도대체’를 뜻한다.

<표 16> ‘과연’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과연	果然	到底	究竟
비율	20%(2)	40%(4)	40%(4)

<표 17>를 보면 ‘확실히’을 번역할 때 ‘確實’, ‘眞的’로 번역할 수 있다. ‘確實’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이고 ‘眞的’는 성분 부사어이다.

<표 17> ‘확실히’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확실히	確實	眞的
비율	60%(6)	40%(4)

<표 18>를 보면 ‘다행히’는 중국어에서 ‘幸好’와 ‘幸運的是’로 번역할 수 있다. ‘幸好’가 80%, ‘幸運的是’는 20%로 나타났다. ‘幸好’가 중국어 문장 부사어이고 ‘幸運的是’는 ‘다행스러운 것은...이다’를 뜻하는데 문장 부사어가 아니다.

<표 18> '다행히'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다행히	幸好	幸運的是
비율	80%(8)	20%(2)

한국어 문장 부사어인 '고맙게도'와 '아쉽게도'가 용언이 부사형 어미와 결합한 형태이다. <표 19>와 <표 20>를 살펴보면 이 두 문장 부사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맙게도'의 경우, 60%의 피험자가 '感謝'로 번역하고 40%의 피험자가 '太感謝了'로 번역한다. '感謝'가 문장의 서술어이고 '太感謝了'는 앞의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말하는 '아주 고맙다'라는 문장이다.

'고맙게도'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60%가 '可惜的是', 40%는 '太可惜了'로 나타났다. 그러나 '可惜的是'가 중국어 문장 부사어이다. 그리고 '太可惜了'는 '너무 아쉽다'라는 문장이다.

<표 19> '고맙게도'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고맙게도	感謝	太感謝了
비율	60%(6)	40%(4)

<표 20> '아쉽게도'의 중국어 대응표현의 사용빈도

아쉽게도	可惜的是	太可惜了
비율	60%(6)	40%(4)

4.3.2 중국어 대응표현의 위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문장 부사어가 있고 다른 표현도 있다. 대응하는 문장 부사어로 표현한 문장은 많지 않은데 ‘확실히’를 ‘確實’로 번역한 것과 ‘다행히’를 ‘幸好’로 번역한 것이다. ‘確實’와 ‘幸好’가 모두 문두 위치에 나타났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대부분 문두 위치에서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장 부사어의 다른 표현의 경우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0나, 다)가 (30가)에 대한 번역문이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 ‘요컨대’가 중국어에서 ‘總之’, ‘總而言之’로 번역하는데 의미도 같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總之’, ‘總而言之’는 접속사에 속하며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두 위치에서 나온다.

(30) 가. 요컨대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나. 總之, 有實力才能成功.

다. 總而言之, 有實力才能成功.

(31)와 같이 ‘이른바’가 중국어에서 관형어 ‘所謂的’로 표현한다. 이의 위치가 수식해야 하는 체언 앞에서 나온다.

(31) 가.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이 책을 멀리하다니.

나. 所謂的學者怎么能遠離書本呢?

(32나, 다)에 따라 한국어 문장 부사어 ‘솔직히’가 중국어에서 ‘說實話’, ‘坦白地說’로 표현할 수 있다. 두 표현에서 모두 ‘說’라는 서술어 있다. (32나)와 (32다)에서 ‘요즘은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은 목

적어를 역할한다. 그리고 중국어 ‘서술어+목적어’의 어순이라서 ‘說實話’, ‘坦白地說’라는 표현이 문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33나, 다)가 (32)와 같은 경우이다. ‘제발’와 대응하는 표현 ‘拜托’, ‘求’기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므로 문두에 나타났다.

(32) 가. 솔직히 요즘은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나. 說實話, 最近太忙了沒有休息時間.

다. 坦白地說, 最近太忙了沒有休息時間.

(33) 가.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주세요.

나. 拜托不要告訴別人

다. 求你不要告訴別人

(34나, 다)에서 ‘과연’과 대응하는 표현이 문장 부사어 ‘到底’와 ‘究竟’가 있다. 그리고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대부분 문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34나, 다)에서 ‘到底’와 ‘究竟’가 문두에서 위치한다. 사실 ‘과연’과 의미가 같은 문장 부사어는 ‘果然’이다. 그러나 ‘果然’가 중국어에서 의문문 제약을 받는다.

(34) 가. 과연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 到底事情以后會怎么發展?

다. 究竟事情以后會怎么發展?

(35가)와 (36가)는 ‘-게도’형 명제 문장 부사어에 속한 문장이다.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35나,다)와 (36나,다)와 같이 살펴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다. 하나가 문두 위치에 나와 서술어로 기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 문장을 먼저 말하고 나서 후행 문장에서 감정 전달과 평가한 것이다.

(35) 가. 고맙게도 민준이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나. 感謝民准接受了我的請求.

다. 民准接受了我的請求, 太感謝了.

(36) 가. 아쉽게도 결승 진출권을 잃다.

나. 可惜的是失去了決賽的參賽資格.

다. 失去了決賽的參賽資格, 太可惜了.

(35다)가 ‘민준이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고, (36다)는 ‘失去了決賽的參賽資格’라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한 평가이다.



V.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 양상

5.1 연구 대상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수행한 번역 과제를 대상으로 문장 부사어 사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과제에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넘는 topik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절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4장에서 언급한 피험자와 같아서 여기서 정보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5.2 연구 절차

본 논문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문장 부사어가 들어가는 중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취하며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번역할 때 한국어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는가, 사용 안 하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빈도 조사를 통하여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연구 목록을 선정하였다.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제시된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北京語言大學語料庫>에 나온 문장 부사어의 사용 빈도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는 『고려대 한중사전』을 참고한 것이다.

<표 21>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목록

중국어 문장 부사어	한국어 문장 부사어
可能	아마도
其實	사실
千萬	제발
的確	확실히
幸好	다행히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표 22>와 같은 중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시켰다.

<표 22> 중국어 번역 과제물

<p>① <u>可能</u>小姑娘會喜歡這種人 (<u>아마도</u> 젊은 여자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다.)</p> <p>② <u>其實</u>他去了上海. (<u>사실</u> 그는 상하이에 갔다.)</p> <p>③ <u>千萬</u>記住我說的話. (<u>제발</u> 내 말을 기억해야 한다.)</p> <p>④ <u>的確</u>這是你的錯誤. (<u>확실히</u>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p> <p>⑤ <u>幸好</u>沒有造成人員傷亡. (<u>다행히</u> 인명 피해가 없었다.)</p>

5.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번역문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용 양상에 따라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이 번역할 때 한국어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23>를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 빈도가 문장 부사어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사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100%로 나타난다. 다음에 ‘아마도’, ‘제발’, ‘다행히’, ‘확실히’의 순위로 나타난다.

<표 2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사용빈도

중국어 문장 부사어	사용했음	사용하지 않았음
可能(아마도)	70%(7)	30%(3)
其實(사실)	100%(10)	0%(0)
千万(제발)	40%(4)	60%(6)
的确(확실히)	10%(1)	90%(9)
幸好(다행히)	30%(3)	70%(7)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음 예문과 같이 살펴보자. (37)에서는 중국어 문장 부사어인 ‘可能’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고 ‘-을/르 것 같다’라는 양태 표현을 사용하였다.

(37) 젊은 여자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다.

(38가, 나)는 ‘千万’와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인 ‘제발’를 사용하지 않은 보기이다. (38가)에서 부사 ‘꼭’와 양태 표현 ‘아/어/여야 한다’를 사용해서 명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8나)도 양태 표현 ‘아/어/여야 한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千万’가 ‘명령’보다 ‘부탁’의 감정이 더 강해서 (38가)와 (38나)의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

(38) 가. 꼭 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나. 내 말을 기억해야 한다.

(39가-다)에서는 ‘的确’를 번역할 때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9가, 나)가 ‘확실히’를 대신해 형용사 ‘틀림없다’, ‘확실하다’를 사용하였다. (39다)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인정하여 ‘맞아’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39라)는 ‘확실히’ 말고 ‘진짜’라는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였다.

(39) 가. 이것은 너의 잘못이 틀림없다.

나. 이것은 너의 잘못이 확실하다.

다. 맞아,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 이것은 진짜 너의 잘못이다.

(40가, 나)를 살펴보면 대부분 피험자들이 ‘다행히’라는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 ‘다행’이 ‘이다’와 결합한 활용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가)가 연결어미로 연결하는 접속문이고 (40나)는 ‘인명 피해가 없다’에 ‘-는 것은’을 붙여 명사화하였다. 내포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장 부사어 ‘다행히’가 들어가는 문장의 분열문이라고도 한다.

(40) 가.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며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1장에서 먼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부사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한중 문장 부사어의 하위분류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2008), 『우리말 큰 사전』(1993)와 중국어 『現代漢語詞典』(1999), 『現代漢語八百詞』(2003)에 나온 문장 부사어를 수집하여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4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번역 과제를 통하여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본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번역 과제를 통하여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한 것이다.

6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며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 화용론 기능, 그리고 통사적 특징을 비교해 왔다.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 문장 부사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형태가 중국어보다 더 다양하다고 알 수 있다.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형태적 특성에 따라 어휘 문장 부사어, ‘체언+부사격조사’, ‘용언어간+부사형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체언+부사격조사’가 주로 ‘-게도’형(유감하게도, 놀

랍게도)으로, ‘용언어간+부사형어미’는 ‘-으로는’형(현실적으로, 언어학적으로)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어휘부사어만 존재한다. 둘째, 한중 문장 부사어에 대해 구문 제약, 분열문, 부정 영역, 그리고 문장 부사어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우선 구문 제약 같은 경우,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 나오면 비문이 되지만 ‘도대체’, ‘대관절’과 같은 문장 부사어가 의문문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는 적어도 확인의문문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발, 부디’와 같은 청자 중심 발화행위 부사어의 경우 명령문 혹은 청유문과의 공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반면에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의문문, 명령문, 기원문에서 모두 제약을 받아서 비문이 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분열문이 될 수 있는 부사가 있는데 이는 문장 부사어를 판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분열문되기가 가능한 부사는 ‘다행이’, ‘명백히’와 같은 서술성 용언의 활용형이거나 굳어진 형태뿐이다. 또는 부정 영역의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모두 부정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장 부사어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한중 문장 부사어에서 위치 이동 가능한 것이 있고, 문두에만 고정된 것도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문장 부사어도 위치에 따른 의미 차이가 다소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부사어가 이동할 때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음절 문장 부사어가 중국어에서 주어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접속사가 나온 문장에서 문장 부사어가 접속사 앞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

셋째, 접속 부사어를 제외하여 한국어 문장 부사어를 화용론적 특징에 따라 발화행위 부사어, 영역 부사어, 명제 부사어로 나눈다. 발화행위 부사어를 다시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화·청자 중심 부사어로 분류하고, 명제 부사어를 양태 부사어와 평가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 발화행위 부사어 중의 화·청자 중심 부사어, 명제 부사어 모두 존재하

는 반면 발화행위 중심 부사어와 영역 부사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 표현은 절로 실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수행한 번역 과제를 대상으로 문장 부사어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이 과제에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넘는 topik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문장 부사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문장 부사어가 들어가는 한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취하며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 부사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화제가 명제에 대한 감정, 태도를 전달하는 중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취하며 분석한 것이다.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사용 양상에 따라 한국어 문장 부사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서 문장 부사어가 있는데 문장 부사어가 아닌 다른 표현도 있다. 대응하는 문장 부사어로 표현한 문장은 많지 않은데 ‘확실히’를 ‘確實’로 번역한 것과 ‘다행히’를 ‘幸好’로 번역한 것이다. ‘確實’와 ‘幸好’가 모두 문두 위치에 나타났다. 중국어 문장 부사어는 대부분 문두 위치에서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 양상에 따라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이 번역할 때 한국어 문장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중 문장부사를 형태적, 화용론적, 통사적으로 비교 분석한 데 의미가 있지만 분석할 수 있는 예문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예문과 문장부사 목록을 선정하여 한중 문장부사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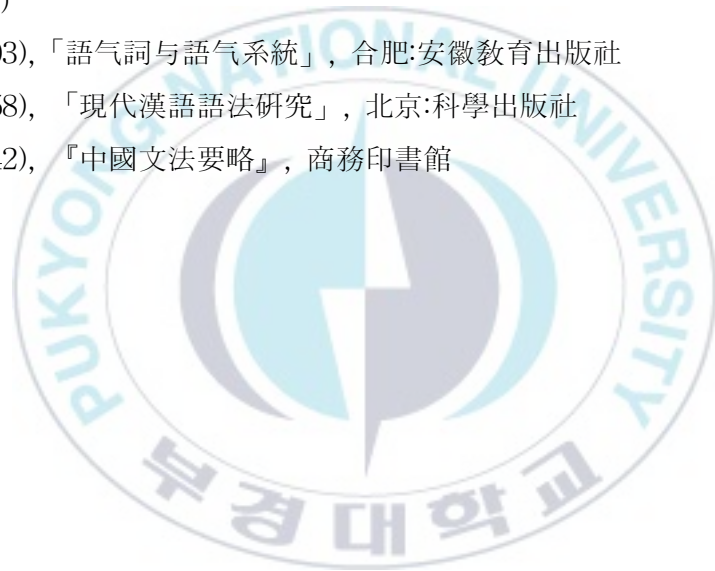
- 가경위(2014), 「한국어 추측성 양태부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 ‘사실, 분명히, 아마, 어쩌면, 혹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 김덕균(2014), 「현대 중국어 어기부사 ‘本來’ ‘原來’의 통사-의미기능 비교」, 중국인문과학 57, p.107-119
- 김련옥(2013), 「한·중 양태부사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련옥(2013), 「한중 양태부사의 범주 관련 문제」, 문창어문 논집 50, p. 125-151
- 김선효(2005),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 정보 사회 6(0), p.36-54
- 김선희(2002), 「부정 양태 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한글 256, p.69-97
- 김중명·박만규(2001), 「‘-게(도)’형의 문장부사어 및 그 구문에 관하여」, 언어학28, p.57-75
- 김종호(2005), 「現代漢語句子副詞的寓意特点及分類」, 중국어문학논집 33, p.73-89
- 김효진(2019), 「한국어 문장부사에 대한 학습자 언어 연구 - 중국어권 및 일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2014, p.211-223
- 누문연(2013), 「韓·中 推測 樣態副詞 對照 研究 : ‘아마’, ‘어쩌면’, ‘혹시’를 中心으로」, 중향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류판루(2017), 「한·중 한국어 중급 교재의 양태부사 교육내용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리해영(2011), 「양태부사 ‘혹시’ 사용에 관한 오류 분석 및 중국어 대응 관계」, 중국 조선어문 2011(6), p.28-33

- 문숙영(2019), 「한국어의 부사 및 부사절의 언어 유형적 특징」, 국어국문학 187, p.5-53
- 문혜정(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부사 ‘아마’와 ‘혹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기능」, 국어국문학회69, p.262-265
- 서정수(198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말 문법 연구 및 교육자료 목록」, 한국어교육1, p.229-356
- 손남익(1995), 「부사의 의미론 ‘어휘적 관점에서’」, 한국어 의미학 52, p.139-161
- 송소맹(2017), 「現代漢語語氣副詞的分布與句子信息結構的關係探討」, 중국 언어연구 72, p.219-245
-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p.207-239
- 신서인(2014), 「답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p.89-118
- 안명철(2001), 「부사어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어문연구29(3), p.5-27
- 왕원·박덕유(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부정 양태부사 대조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5, p.181-209
- 이나(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가정·추측 양태부사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환묵(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2, p.126-139
- 임채훈(2018), 「부연의 문장 부사로서 ‘그만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추론적 부연의 범주 설정과 연계하여」, 한국어 의미학 62, p.51-71
- 장박함(2016), 「한·중 인식 양태 표현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장효진(2020), “한국어 양태부사 ‘설마’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정교환(1990), 「문장부사의 서법성 고찰」, 어문론총 24, p.125-138
- 정명숙(2008), 「어기부사의 기능과 주관성 표현」, 중국어 문학논집, 0(50),

p.243-263

- 조승은(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부사의 교육 방안 연구-‘아마, 어쩌면, 혹시, 아무래도, 설마’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주술(2017), 「한국어 양태부사 ‘과연, 역시’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최용환(2012), 「국어 부사의 통사적 지위와 표상」, 우리말글 54, p.25-55
- 최죽산(2015), 「한중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대조 연구」, 한국 (조선)어 교육연구10, p.264-290
- 탕이영·진영하(2021), 「한국어 추측 표현과 양태부사의 공기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한국 언어문화학 18, Issue 1, p. 297-324
- 홍은선(2001), 「現代 漢語 語氣副詞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Lyons, J.(1977), 『Semantics 2』,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 Ramat, P. and D. Ricca(1998), 「Sentence adverbs in the Language of Europe, in vander Auwera ed.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 of Europe」, Berlin: Mouton de Gruyter, p. 187-275.
- 史金生(2003), 「語氣副詞的範圍, 類別和共現順序」, 中國語文 第1期
- 吳善子(2010), 「漢韓反詰語氣副詞對比研究」, 上海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 楊德峰(2016), 「或然類語氣副詞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泉(1996), 「語氣和語氣詞研究」, 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尹洪波(2013), 「飾句副詞和飾謂副詞」, 語言教學與研究 6
- 張誼生(2000), 『現代漢語副詞研究』, 上海學林出版社
- 袁毓林(2002), 「現代漢語情態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徐晶凝(2008), 『現代漢語話語情態研究』, 昆侖出版社
- 朱麗(2005), 「揣測語氣和揣測語氣副詞」,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朱麗(2005), 「揣測語氣和揣測語氣副詞」,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力(1985),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 盛春麗(2003), 「或然語氣副詞大概, 也許和恐怕的功能分析」,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胡明揚(1981), 「北京話的語氣助詞和嘆詞」, 中國語文 5
- 賀陽(1992), 「論漢語書面語的語氣系統[J]」, 中國人民大學學報 5
- 趙吉(2011), 「小議語氣副詞的定義和範圍」, 中國語文論集 67
- 郭新雨(2003), 「現代漢語語氣副詞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黎錦熙(1924),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 齊春紅(2006), 「對外漢語教學中的語氣副詞教學研究」, 雲南師範大學學報 4(3)
- 齊滬揚(2003), 「語氣詞與語氣系統」, 合肥:安徽教育出版社
- 龍果夫(1958), 「現代漢語語法研究」, 北京:科學出版社
- 呂叔湘(194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부록

문장부사 전체 목록

	기어이/기여히	뜻밖에
가사	기어코	마기말로/막상말로
가약	기연/기연히	마땅히
건정	기필코	마침내
계다/계다가	꼭	만만다행히/만분다행히
결국	끝내/끝끝내	만손
결단코	내나	만약
결코	다만	만일
곧	다행히	만혹/설혹/억혹
곧이어	단	맹세코
과시	단연/단연코/단연히	명백히
과약	단지	모름지기
과연	당연히	무릇
그나저나/그러나저러나/	대개	물론
그	대관절	미상불/미상비
래저래	대범	바야으로/바야흐로
그래도	대저	반드시
그래서	대정코	방가워/방가워지
그러나	대체/대체로	보매
그러니까	대컨	보아하니/봐하니
그러면	더구나(더군다나/더더구	보아한들
그러므로	나	보통
그런고로	/더더군다나/더러구나)	부디/부디부디
그런데	더욱이	분명/분명코/분명히
그렇지만	도대체	불연즉
그리고	도리어/되레	불행히
그리하여	드디어	비로소
그야	따라서	비록
그제야	또는	비컨대

급기야	또한	
사실	어차피	진시
사실상	여하간	진실로
상필	여하튼/여하튼지	진실히
설령	연이나	진정/진정코/진정히
설마	연즉/한즉	진짜로
설마하니	예컨대	짜장
설마한들	오히려/외려	차라리
설사	왜냐하면	참
설약	요컨대	참말/참말로
성시	우선	참으로
세상없어도	원컨대	천하없어도
솔직히	으레/으레히	틀림없이
시고로/연고로	응당/응당히	필경
실로	응연/응연히	필시
실은	의당히	필야
실제/실제로	의외로/의외로이	필연코
실지/실지로	이나저나/이러나저러나/	필위
아마	이	필히
아마도	래저래	하여간/하여간에
아무래도	이를테면/일테면	하여튼/하여튼지
아무리/암만	이리하여	하지만
아무쪼록	이어/이어서	한데
아울러	이에/자에	한편
아무튼/암튼/아무튼지	이윽고	행여/행어나
어김없이	이제야	혹
어느덧	일단	혹시/혹시나
어느새	정말/정말로	혹야/혹여/혹어나
어떻든/어떻든지	정확히	혹은
어시에/어시호	제발	혹자
어쨌건	제아무리	확실히
어쨌든/어쨌든지	즉	
어찌면/어쩔	진성	
	진소위	